

# 문화로 살려낸 도시재생 명소를 만나다

### 본사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도시재생, 문화가 미래다' 펴내 담양해동예술촌·뉴욕하이라인파크 등 국내·외 21곳 답사

광주시민회관 FoRest971, 담양해동예술촌,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부산감천마을, 제주아라리오 뮤지엄, 독일 에센 '루르박물관', 뉴욕하이라인파크... 위에 언급한 도시 공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문화를 매개로 재생된 공간들이다.

근래 도시재생은 국내외 도시들이 직면한 과제다. 세계 어느 도시든 성장과 쇠퇴를 거치면서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20여 년 전만해도 국내에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재생이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도시 고유의 정체성과 삶의 기억까지 '리셋'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후 문화와 예술을 토대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문화적 도시재생'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했다.

오래된 기억의 공간을 문화로 살려낸 도시재생을 소개하는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광주일보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겸 문화·예향 국장이 발간한 '도시재생, 문화가 미래다' (엔터)는 개별 도시들이 지닌 고유한 정신적·문화적 가치를 도시재생과 관련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수년간 국내외 도시재생의 현장과 공간을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문화적 재생의 가치와 의미를 담았다.

박 기자는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전통적인 도시개발 대신 지역의 역사와 흔적을 간직한 공간에 문화와 스토리텔링을 엮은 재생은 도시의 정체성과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박 기자는 문화와 시간의 가치를 투영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미국의 도시 사회학자인 제인 제이콥스의 견해로 설명한다. 제인 제이콥스는 그의 저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낡은 건물을 부수고 빈껍데기를 대형건물을 짓는 방식의 도시개발은 오히려 도시를 죽게 만든다. 이것은 도시재건(rebuilding)이 아니라 도시를 약탈

(sacking)하는 행위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 근거하면 '작은 블록과 오래된 건물은 역동적인 도시를 만드는 힘'이자 원동력이다.

책에서는 광주와 담양을 비롯한 국내 11곳과 런던, 파리, 나오사마, 뉴욕 등 국외 10곳을 포함한 모두 21곳의 도시재생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추억의 공연장이 정춘의 숲으로 변신한 광주시민회관 FoRest971은 '근대건축이 청년과 통(通)' 상징적인 공간이다. 건립된 지 50여 년이 넘은 광주시민회관은 영화관으로, 결혼식장으로 활용되던 추억의 명소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과 맞물려 노후화 되면서 잊혀지는 신세가 됐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 리모델링 방침을 정하고,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나는 가수다' 방식의 시민심사로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광주공원에 분산된 역사적 요소를 '광주평상'과 '광주카펫'이라는 두 판으로 엮고 정자 개념을 도입해 이색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저자는 "기존 시민문화회관의 관람석 지붕을 철거하고 야외 공연장과 실내소극장, 전시실, 카페 등을 갖춘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은 막걸리 주조장의 정체성을 살린 독특한 전시구성과 콘텐츠로 이목을 끌었다. 1960년대 전통 주조방식으로 막걸리를 생산하다 2010년 폐업 이후 방치된 주조장이었다. 그러나 문화재생이라는 '웃'을 입히자 주조장은 지역민은 물론 외국인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대표 공간으로 부상했다. 2019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최우수상, 2019 매니페스토 지역문화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구 근대골목은 골목에 잠자던 역사 이야기로 숨결을 불어넣은 곳이다. 5개 코스로 이루어진 골목투어에 한 해 방문객이 20여만 명이 넘는다. 지난 2000년대 초반 거리문화시민연대 사무국장이었던 권상구 씨가 시작한 '대구문화지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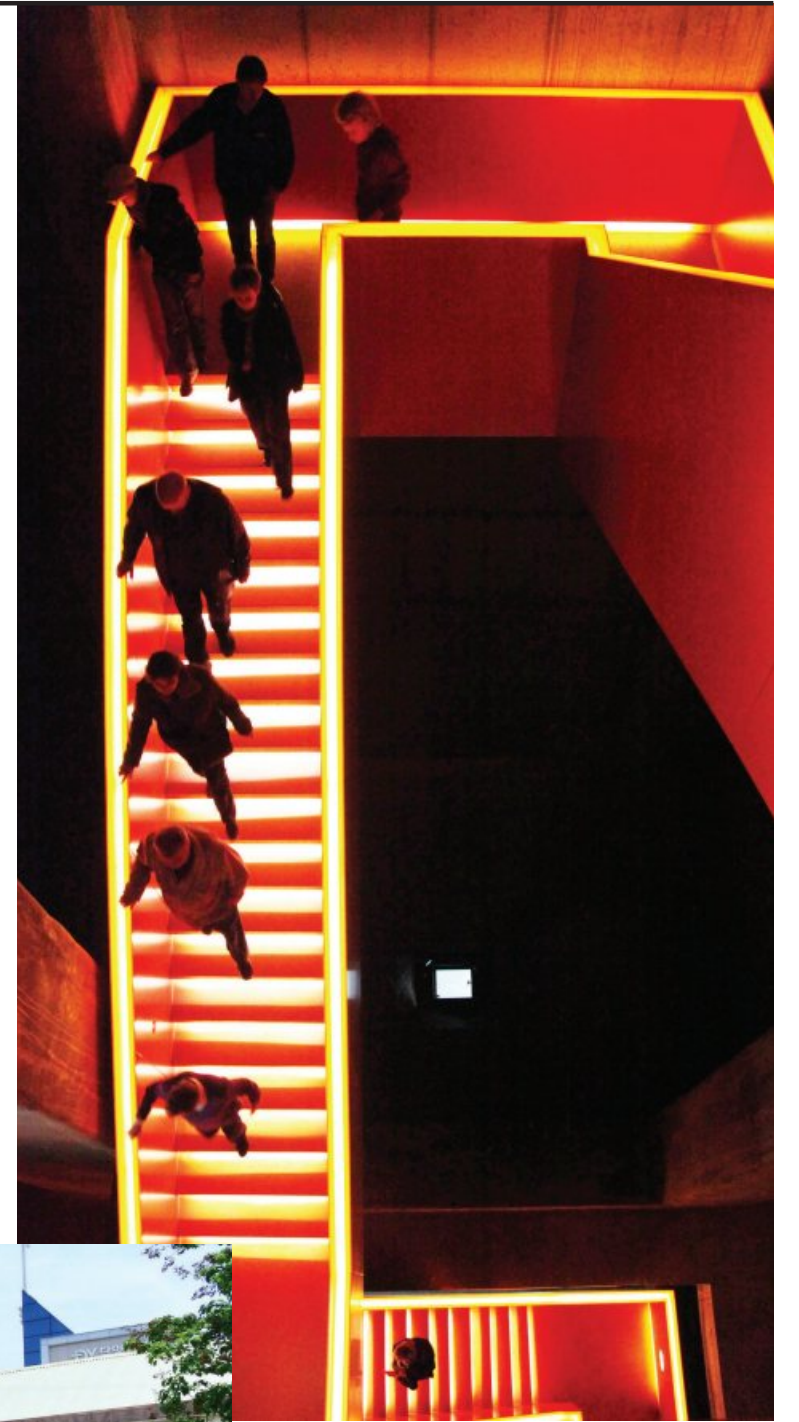
가 씨앗이 돼 확산된 것. 5개 코스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제2코스 '근대문화골목'으로 이곳에는 3·1운동만세길-계산성당-이상화-서상돈 고택-황나루골목 등으로 이어진다.

외국 사례로는 '대도시 하늘에 걸린 푸른 별천지' 뉴욕 하이라인파크를 들 수 있다. 당초 하이라인 일대는 정육 공장 등이 즐비한 공장지대였다. 당연히 축산물을 수송하기 위해 서부수송선이 놓였지만 철도를 무단횡단하는 이들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회사는 안전대책으로 지상의 철도를 약30피트(9m) 끌어올리는 고가철도를 고안했다.

그러나 이후 트럭과 같은 대중교통이 일반화되면서 이곳은 급속히 쇠락했고, 시민 서포터즈들이 힘을 모아 철거를 막고 공원을 조성해 추진했다. 현재 이곳은 한 해 방문객 500만 명이 찾는 뉴욕 대표 랜드마크가 됐다.

이밖에 책에는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문화역 서울284, '한국의 산토리니' 부산 감천문화마을, 시민이 주도한 문화 아트지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도시재생 새 패러다임을 연 런던 테이트모던 미술관 등이 소개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페탄광시시설을 세계적인 문화발전소로 부활시킨 독일 에센의 루르박물관(Ruhr Museum).  
◀옛 양조주조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담양해동문화예술촌.



## '광주 화교의 음식문화'·'5·18 기념행사와 벵골 새해 행렬'

### ACC, 아시아 교양서 '아시아플러스'·'교차하는 아시아' 출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담장 이강형)이 광주 화교의 음식문화와 5·18 기념행사 등 광주 관련 연구를 다룬 책을 발간했다.

ACC가 발간한 이들 '광주 화교의 음식문화'와 '5·18 기념행사와 벵골 새해 행렬'은 아시아문화 콘텐츠 활용을 위한 보고서 9권 가운데 포함돼 있다. 아시아의 다양성을 알리는 교양서 시리즈 '아시아플러스' (5권)와 '교차하는 아시아' (4권)의 기획 일환으로 출간됐다.

'광주 화교의 음식문화'와 '5·18 기념행사와 벵골 새해 행렬'은 광주 관련 연구서다. 광주 화교의 음식문화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와 유사한 방글라데시 민주주의 기념행사인 망갈 쇼바자트라를 각각 소개했다.

'아시아 플러스'는 아시아문화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연구에 참여, 국내외 전문 연구자와 공동집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시아 도시 문화를 비롯해 의식주,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먼저 '아시아플러스'는 1편 '중앙아시아 마나스 연구'는 키르키즈 민족국가 재건한 영웅 마나스의 3대에 걸친 역사를 노래한 서사시를 다뤘으며 2편 '지속가능한 도시와 시설 기초연구'는 서울, 중국, 일본의 지속가능한 모여 살기의 방식을 소개했다.

또한 '아시아 카펫문화 연구'는 아시아 카펫의

일상성과 예술성을 모티브로 페르시아, 아랍, 인도, 중국과 한국 카펫의 역사와 문양에 담긴 의미를 분석했다.

다음으로 '교차하는 아시아'는 ACC 방문학자 보고서로 베트남, 필리핀, 한국 학자 등 4명의 연구 결과물이다. 이들은 지난해 '도시문화'를 화두로 연구했으며, 책에는 인터뷰를 실어 이해를 도왔다. '대중문화에 묘사된 동남아시아 대중교통 운전사'와 '도시 중산층의 성장과 새로운 도·농 교류의 등장-필리핀 메트로 마닐라를 사례로'는 필리핀 도시 대중문화를 분석했다.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의 민족주의 글쓰기'는 사회주의 시기 이후 베트남 소설에 나타난 탐욕스



러운 외국인 기업가와 군인을 진단했으며 '트랙터는 쌀이고 쌀은 사회주의'는 6·25 이후 남, 북한의 농업 기계화 과정에서 트랙터가 가진 의미를 추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키르키즈 민족국가 재건한 영웅 마나스를 모티브로 한 전시 장면. (ACC 제공)

## 국립남도국악원, 2월 6일~10일 '동계 미래교원 국악연수'

국립남도국악원이 미래 교원을 대상으로 전통 문화 연수를 진행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4박 5일간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 40명을 대상으로 '2023 동계 미래교원 국악연수'를 진행한다. (사진)

이런 연수에서는 국악 특강과 장구 반주법, 사물 장구 등 실기 중심의 강습이 진행된다. 단소와 민요의 실기 수업의 경우 교과서에 수록된 수록곡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현 장형 교육 방식으로 마련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에게 직접 강강술래를 배울 수 있으며 진도의 명소 윤립산방 등을 방문하는 지역 문화탐방,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수단의 국악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이번 사업은 동계(2월)와 하계(7월)에 걸쳐 연 2회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061-540-403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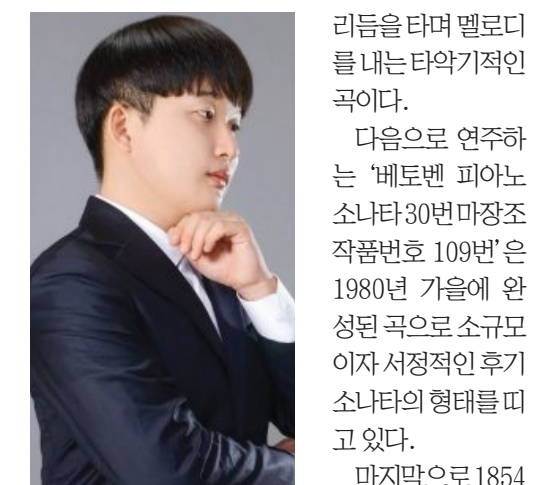
## 겨울 추위 녹이는 정대승 피아노 리사이틀

### 1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정대승(사진)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이 17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목원대 음악대학 피아노과를 졸업한 정대승은 한국피아노재능기부협회 콩쿨 입상, 한국 영아티스트 음악콩쿠르 3위, 제11회 대한민국 신인 음악콩쿠르 2위 등을 차지한 피아니스트다. 서울국제 교류음악센터 '영아티스트 콘서트', 연습의 전당과 함께하는 제1회 '더 피아니스트', 사랑나눔을 악회 등에 참여하며 다양한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현재는 한국 피아노 재능기부 협회와 한국 피아노 교육협회의 회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공연의 무대 막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9번 리장조'로 올린다. 이어 로디노 세드린이 작곡한 2개의 '폴리포니 소품들' 중 2번째로 수록된 곡인 '반복저음(basso ostinato)'을 연주한다. basso(바소)는 이탈리아어로 베이스를 의미하고 ostinato(오스티나토)는 일정한 음형을 같은 성부에서 같은 음높이로 계속 되풀이 하는 음형을 말한다. 낮은 왼손 베이스 음을 반복하고 오른 손에서



리듬을 터머 멜로디를 내는 타악기적인 곡이다. 다음으로 연주하는 '베토펀 피아노 소나타 30번 마장조 작품번호 109번'은 1980년 가을에 완성된 곡으로 소규모 이자 서정적인 후기 소나타의 형태를 띠고 있다. 마지막으로 1854년 라이프치히의 키스너 출판사에서 출판된 리스트의 '발라드' 2개 중 두번째로 수록된 곡인 '발라드 2번'을 무대에 올린다. 공연에 앞서 11일에는 서울 '어뮤즈 사운드:숨아트리움'에서 연주회를 연다. 광주 공연은 입장권 전석 1만 원이며 현장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10-7153-9263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이상문학상에 최진영 작가 '홈 스위트 홈'

### 우수상 김기태·박서련·서성란·이장욱·최은미 작가

올해 제46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최진영 작가의 '홈 스위트 홈'이 선정됐다.

이 상을 주관하는 문학사상은 27일 서울 중구 한옥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수상작을 이같이 발표했다.

우수작에는 김기태의 '세상 모든 바다', 박서련의 '나, 나, 마들렌', 서성란의 '내가 아직 조금 남아 있을 때', 이장욱의 '크로킵', 최은미의 '그곳' 등 5편이 뽑혔다.

2006년 등단한 최진영 작가는 '끝나지 않는 노래',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이제야 언니에게', '구의 증명', '내가 되는 꿈' 등의 장편 소설을 펴

냈다.

'홈 스위트 홈'은 온전한 자신의 집을 갖지 못한 채 살아온 화자가 딸기암 진단을 받은 후 얻은 폐가를 자기만의 공간으로 고쳐 현재의 삶에 충실하려는 과정을 섬세한 문체로 그려냈다.

심사위원회는 "인간의 삶이 집이라는 공간과 합쳐져 만들어 내는 기억의 심호한 의미를 존재론적으로 규명하고 있는 이 작품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대상 상금은 5000만 원이며 우수작 재 수록료는 각 500만원이다. 제46회 작품집은 다음 달 출간된다. /연합뉴스